『漢文古典硏究』, 한국한문고전학회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2019, 第39輯, pp.57~81
http://dx.doi.org/10.18213/jkccl.2019.39.1.003

# 금강 선유 한시 연구

정 만 호*

< 目 次 >

Ⅰ. 시작하는 말
Ⅱ. 勝景의 船遊地 금강
Ⅲ. 공산성 주변 近遊의 한시
Ⅳ. 백마강까지 이어진 遠遊의 한시
Ⅴ. 맺는 말

## <국문 초록>

충남의 공주는 현재 인구 10만 정도의 소도시이다. 하지만 전통시대에는 백제의 고도, 군사적 요충지, 교통의 요지로 명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충청감영의 소재지로서 군사·행정적으로 중시되었다.

공주의 금강은 계룡산과 함께 공주를 대표하는 산천의 하나였다. 서해로부터 강줄기를 따라 상류까지 물자 수송의 중요한 수로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와 호남을 오가는 이들의 왕래가 잦았다. 게다가 공산성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船遊地로도 유명하였다.

교량이 건설되고 육상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금강에서의 뱃놀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현재 금강의 모습만으로 본다면 뱃놀이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하지만 금강에서 지어진 많은 한시 작품들은 주변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화려했던 뱃놀이 모습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전통시대 공주가 겪은 장소 경험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백제의 고도,

* 충남대학교 부교수 / 330201@hanmail.net

www.kci.go.kr

仁祖의 駐蹕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이다. 무령왕릉을 비롯한 유물유적, 그리고 公山城의 雙樹亭과 雙樹亭事蹟碑는 공주라는 장소가 겪은 의미 있는 경험을 오랫동안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계룡산 역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갑사나 동학사를 비롯한 사찰을 찾는 이들과 등산을 목적으로 탐방에 나서는 발길이 이어진다. 그러나 금강은 전통시대 공주를 대표하는 경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옛 모습을 오늘에 전달해줄 매개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금강의 선유 모습을 한시 속에서 찾아내어 공주의 중요한 장소였던 금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금강에서의 선유는 공산성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부여의 백마강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前者를 近遊, 後者를 遠遊로 구분하여 船遊가 이루어진 장소, 규모, 시인들의 감성을 검토하였다.

선유는 유람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지어진 한시들에 비해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유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고도이며 빼어난 경관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백제의 멸망에 대한 상심의 정도는 백마강 유람에서 지어진 한시에 더 짙게 나타났다.

【주제어】 금강, 백마강, 船遊, 한시, 백제의 고도, 勝景, 場所性

## Ⅰ. 시작하는 말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다양하다. 역사적 사건, 인물, 건물, 경관, 먹거리나 유흥 시설, 또는 개인의 경험 등이 장소와 연결되어 기억으로 남는다. 개인의 독특한 기억과 다수가 공유하는 기억도 있으며,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기억과 매개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여 지속되는 기억도 존재한다.

문학 작품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기억은 古宮, 城郭, 樓亭, 庭園이나 도자기, 서화, 전적 등과 같은 유형의 유물에 비해 경시되었다. 유형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희소성, 아름다움은 평가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들과 관련된 사연과 기억이 공유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www.kci.go.kr

金正喜의 「歲寒圖」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 그림을 李尙迪에게 주었던 사연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공산성의 拱北樓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많지만 그곳에서 지어진 한시를 한 수라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유형의 유물이 형식이라면 그와 관련된 문학 작품은 내용이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확대되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현재 공주는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1] 지방의 소도시이다. 전통시대의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고, 충청감영의 소재지였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유명하였다. 금강[2]은 계룡산과 함께 공주를 대표하는 산천의 하나였다. 서해로부터 강줄기를 따라 상류까지 물자 수송의 중요한 수로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와 호남을 오가는 이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게다가 공산성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船遊地로도 유명하였다.

배를 타고 유람하는 船遊는 遊山과 함께 옛 사람들의 대표적 유람의 형태이다.[3] 과거 문인들은 金剛山 유람을 꿈꾸었고 실제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다. 유람의 모습은 '東遊錄'에 담겨 많은 작품이 전한다. 반면 船遊는 특정한 장소에 치중되기보다는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이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금강도 대표적인 선유 장소였다.

본고는 금강 선유 한시 검토를 통해 선유의 장소, 선유의 규모, 시인들의 감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전통시대 선유지로서 금강의 모습을 검토한 다음 선유 한시를 금강 주변의 近遊의 경우와 백마강까지 이어진 遠遊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계룡산과 병칭되

1)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공주시의 인구는 107,101명이다.

2) 현재 금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과 같이 물의 근원으로부터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까지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전통시대 금강은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임선빈의 연구가 있었다(임선빈, 「錦江의 지명 변천과 國家祭儀」, 『역사와 경계』 7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9). 본고에서 금강은 공주 지역의 강줄기를 의미하는 部分稱으로 사용하였다. 백마강도 부여 일원의 금강을 일컫는 부분칭으로 사용하였다.

3) 김동현 · 이원호, 「조선시대 명승유람 행태의 특성 – 遊山과 船遊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80권, 한국관광학회, 2016.

www.kci.go.kr

었던 금강의 옛 모습을 확인하여 공주의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금강의 모습 뿐 아니라 공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지금,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요소를 제공하고, 금강 뱃놀이의 기억을 이어감으로써 재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勝景의 船遊地 금강

공주는 부여와 함께 백제의 고도로 일컬어진다.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漢城을 공격하자 백제 개로왕은 성문을 나와 서쪽으로 도망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왕위를 이어 같은 해 10월 熊津으로 수도를 옮겼다. 538년 봄 泗沘로 천도할[4] 때까지 64년 동안 웅진은 백제의 都邑이었다.

仁祖의 駐蹕은 역사적으로 공주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1624년 李适이 韓明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여러 고을을 점령하자, 관군은 퇴각하여 黃鳳과 猪灘에서 패배하고, 開城 방어에 실패한 뒤 臨津에서 군대가 궤멸하였다. 이에 인조는 2월 8일 밤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향했다. 13일에 금강을 건너 공주에 도착한 인조는 공산성에 머물며 수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15일, 반란에 참여했던 李守白과 奇益獻 등이 이괄과 한명련의 목을 베어 행재소에 도착하였다. 사흘 뒤인 18일에 공주를 떠났으므로, 인조는 6일 동안 공산성에 주필하였다.[5]

지리적으로 공주는 “큰 산이 서려있고 긴 강이 띠처럼 둘러있다. 남쪽

4)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 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조; 권26, 백제본기4, 성왕 16년 조 참조.

5) 申翊聖, 『樂全堂集』 권7 「雙樹亭記」; 『仁祖實錄』 2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참조. 申翊聖의 「雙樹亭記」에는 “임금의 수레가 정묘일에 공주에 들어갔다.[車駕以丁卯入公州]”라고 하였다. 그러나 2월 3일은 丁亥日, 13일은 丁酉日, 23일은 丁未日이었다. 따라서 ‘丁卯’는 ‘丁酉’의 오기로 보인다.

www.kci.go.kr

으로 완성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上黨山城과 이어진다. 안팎이 산과 강으로 이어져 있으니 천연의 요해지이다."[6]라고 할 만큼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말까지도 이어져 공주는 畿湖의 요충지이며 關防의 긴요처로 언급되었다.[7]

전통시대 공주는 이처럼 역사·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 승경과 번화함으로도 유명하였다. 徐居正(1420-1488)의 "공성의 경치 천하의 제일, 우뚝한 오현이 사방의 진산이라네.[公城之勝天下甲, 五峴嵯峨鎭四角.]", 李春英(1563-1606)의 "車峴 서남의 제일의 고장[車峴西南第一州]", 李睟光(1563-1628)의 "명성 자자한 도회지, 호서 제일의 고장이네.[藉甚名都會, 湖西第一州.]", 李景奭(1595-1671)의 "호서는 호남과 접해 있는데 두 고장의 번성함 대등하네.[湖西地與湖南接, 兩道繁雄甲乙間.]", 南龍翼(1628-1692)의 "공산 태수는 그 즐거움 어떠할까, 이 고을은 경치 좋고 번화하다네.[公山太守樂如何, 形勝繁華此府多.]" 등은 모두 공주의 승경과 번화함을 대변하는 기록들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은 상류로는 영동, 옥천, 청주와 이어지고, 하류로는 청양, 부여, 논산, 서천을 거쳐 서해에 닿기 때문에 육상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중요한 물길이었다.[8] 호남과 경기를 오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였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다음 작품이다.

| | |
|---|---|
| 조각배 타고 강 복판에 있는데 | 扁舟一葉在中流 |
| 남북으로 오가는 사람들 나루에 가득하네 | 北去南來集渡頭 |

6) 『大東地志』 권5, 「忠淸道 公州」 形勝 條, "巨嶽盤紆, 長江襟帶, 南控完城, 東連上黨, 表裏山河, 天府用武之地.

7) 『各司謄錄』, 「忠淸監營啓錄」, 高宗 14年 5月 24日 條, "本道公州牧雙樹亭及山城, 卽仁廟朝駐蹕之地, 而畿湖要衝之處也, 事體尊嚴, 關防緊重."

8) 유성룡은 물길을 이용한 소금의 유통을 말하면서 금강, 한강, 북한강, 임진강, 벽란도,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수계의 고을들을 나열하였다. 금강의 경우 "대개 금강을 통해 운반하면 충청도의 임천·청양·부여·이산·공주·정산·연기·문의·청주·회덕·옥천·황간·영동의 백성들이 모두 무역하기에 편리합니다.[蓋自錦江輸去, 則忠淸一道林川靑陽扶餘尼山公州定山燕岐文義淸州懷德沃川黃澗永同之民, 皆便於就貿矣.]"라고 하였다(柳成龍, 『西厓集』 권7, 「請措置糧餉咨」).

www.kci.go.kr

| | |
|---|---|
| 날 저물고 길 멀어 서둘러 건너느라 | 日暮路長爭競涉 |
| 갈매기 돌아보는 이 하나 없네 | 無人回首見沙鷗 |

鄭道傳,『三峯集』 권2,「渡錦江」

금강을 건너다 강 복판에서 양쪽 강가의 나루를 바라보니 강을 건너려고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루에 가득하였다는 내용에서 당시 금강이 교통의 요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 오갔음을 알 수 있다. 1568년 8월 17일 전라도 災傷御史의 신분으로 금강을 건너던 具鳳齡(1526-1586)은 "오고가는 우마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나루에는 돛대가 빽빽하다."[9]라고 읊었다. 정도전의 시에서 느껴지는 풍광과 다르지 않다.

한편 이하곤은 공주에 峨嵋山과 錦水가 있어 蜀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주를 錦城이라 부른다고 하였으며,[10] 다음과 같이 공주의 승경을 읊었다.

| | |
|---|---|
| 공주와 서촉은 매우 비슷하여 | 公州西蜀宛相似 |
| 아름다운 강산이 천하에 으뜸이네 | 形勝江山天下奇 |
| 아미산 바라보니 안산 마주한 듯한데 | 已看峨嵋如對案 |
| 다시 금강이 탕지 되었구나 | 還將錦水作湯池 |

서촉과 닮은 공주의 강산은 천하의 으뜸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높은 산과 큰 강이 천혜의 금성탕지와 같다는 이하곤의 말에서 공주의 풍광과

9) 具鳳齡,『栢潭集』續集「錦江辭」, "來牛去馬不知其幾何兮, 簇帆檣於渡頭."

10) 李夏坤,『頭陀草』 책11,「錦城歌」小註. "此地有峨嵋山錦水, 與蜀地相似, 故號曰錦城."『古今事文類聚』續集 권21에『華陽志』를 인용하여 "촉에 탁금강이 있다.[蜀有濯錦江]"라고 하였고,『山堂肆考』 권20에서는 錦江을 소개하면서『成都記』를 인용하여 "탁금강은 진나라 승상 장의가 쌓았다. 촉 지방 사람들이 이 물로 비단을 빨면 비단이 선명해진다고 해서 금강이라고 불렀다.["成都記濯錦江秦丞相張儀所築蜀人以此水濯錦鮮明故名錦江]"라고 하였다. 허적이「錦江詞」에서 "미인이 금강 가에 살아 깁과 비단을 금강물에 빤다네.[美人家住錦江頭, 浣紗濯錦錦江流.]"라고 읊은 내용도『성도기』의 내용을 연상하게 한다.

www.kci.go.kr

지리적 특징을 알 수 있다. 금강은 교통의 요지로서 왕래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勝景을 갖춘 船遊의 장소로도 유명했던 듯하다.

| | |
|---|---|
| 호서의 아름다움 꿈속에 아련한데 | 湖西佳麗夢悠悠 |
| 멋들어진 공북루 잊을 수 없어라 | 形勝難忘拱北樓 |
| 금강에 봄물 불어나길 기다려 | 待得錦江春水濶 |
| 원례와 함께 배 띄우려네 | 擬同元禮泛仙舟 |

朴泰淳,『東溪集』권1,「送李久而益壽佐幕湖右」

李益壽(1653-1708)는 1697년 10월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朴泰淳(1653-1704)이 송별의 정을 담아 위의 시를 지어준 듯하다. 박태순은 호서의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며 공북루의 勝景을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봄이 되면 이익수를 찾아가 元禮와 함께 금강에서 뱃놀이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였다. 송별시에서 뱃놀이를 떠올릴 만큼 금강의 뱃놀이는 유명했던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전통시대 금강의 모습은 이처럼 현재와는 많이 달라서 배의 왕래가 빈번하고 빼어난 경관을 갖춘 船遊地로 유명했다. 배를 타고 금강에 나온 사람들은 고조된 흥취를 시로 읊었는데, 해당 한시의 분석을 통해 뱃놀이의 보다 구체적 모습과 시인들의 감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Ⅲ. 공산성 주변 近遊의 한시

금강의 船遊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산성 주변의 뱃놀이이고, 다른 하나는 하류 지역 특히 부여의 백마강까지 방문하는 경우이다. 前者를 近遊, 後者를 遠遊라 하겠다. 육상 교통이 발달하고 강마다 교량이 몇 개씩 건설된 현재의 상황에서 뱃놀이는 낯설게 느껴진다. 강의 수량이 줄어들어 수위가 낮은 곳이 많으니 낯선 정도로 넘어 가

www.kci.go.kr

능성마저 의심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은 뱃놀이 장소로 명성이 있었고, 그를 증명하는 많은 자료가 발견된다.

공주를 유람하며 시를 남긴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은 李夏坤이다. 그가 공주를 방문한 것은 1723년 가을의 일이다. 당시 公山縣監에 임명된 從兄 李衡坤을 찾아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공주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50편의 시를 지었고, 해당 작품들을 宋나라 시인 陸游가 夔州通判이 되어 蜀에 있으면서 그곳의 경치를 좋아한 나머지 평생 지은 시를 『劍南詩稾』라 했던 전례를 따라 『錦江編』으로 엮었다.[11]

1647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公山縣監으로 재직한 申濡(1610-1665)도 공주에서 지은 시를 엮어 『錦江錄』을 남겼다. 신유의 작품도 공주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지방관으로서 다소 경직된 모습이 보인다. 그에 비해 이하곤은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공주를 방문하였고 관직에 몸담은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애됨 없이 진솔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특히 뱃놀이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 | |
|---|---|
| 공산현감 높은 관직이라 | 公山太守亦尊官 |
| 만 겹 계룡산을 관장하네 | 管領鷄龍萬疊巒 |
| 성의 기세 하늘에 닿아 산이 온통 희고 | 城勢到天山盡粉 |
| 누대 풍광 달빛에 일렁여 강물 붉구나 | 樓光蕩月水流丹 |
| 술 마시며 이 밤 실컷 즐기리니 | 杯樽且盡今宵樂 |
| 바람과 이슬이 오경에 차가운들 어떠리 | 風露何憎五夜寒 |
| 해월의 맑은 노래와 당돌의 춤을[12] | 海月淸歌唐突舞 |
| 등불 앞에서 마음껏 감상하노라 | 燈前盡意一相看 |

李夏坤, 『頭陀草』 책11, 「夜泛錦江次延聖輝韻」

11) 李夏坤, 『頭陀草』 책11, 「錦城歌」 10首 中 10首, "一月熊州樂事偏, 賦得新詩五十篇. 須倣放翁劍南例, 却題卷面錦江編."

12) 작품의 小註에 "해월과 당돌은 모두 기녀의 이름이다.[海月唐突, 皆妓名.]"라고 하였다.

www.kci.go.kr

공산태수는 뱃놀이를 준비한 공산현감 이형곤일 것이다. 城은 공산성을, 樓는 공산성 북쪽 금강 가에 위치한 拱北樓를 가리킨다. 우뚝 솟은 공산성의 성벽이 公山을 감싸서 산이 온통 하얗게 보이고, 달빛 받은 공북루가 그 그림자를 금강에 드리워 강물이 붉게 보인다는 묘사는 다소 과장적이다. 하지만 주변의 대표적 경관을 자연스럽게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니 이슬이 차갑든 말든 개의치 않고 새벽까지 이어가겠다는 고조된 흥취가 느껴진다. 공산현감이 준비한 뱃놀이답게 술은 물론 노래하고 춤추는 기녀까지 함께 어울리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뱃놀이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하곤은 당시의 유람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두보가 渼陂에서 즐겼던 뱃놀이도 부럽지 않다고 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적벽에서 신선과 함께 날아다닌다고 했던 蘇軾에게 견주기도 하였다. 기녀들이 사랑스럽게 노래하고, 맑은 강물 위로 떠가는 배를 밝은 달빛이 가득 비추는 밤풍경, 붉은 홍시와 싱싱한 생선회가 준비된 뱃놀이의 즐거움을 이하곤은 생생하게 묘사하였다.[13] 그 중에서도 白眉는 다음 작품이다.

| | |
|---|---|
| 우리 형이 수령 되어 공주에 오시니 | 吾兄作宰來公州 |
| 훌륭한 치적 공수와 황패 못지않네 | 美績不減龔黃儔 |
| 공문 다 처리하고 집무실 한가로워 | 掃盡簿牒鈴閣閑 |
| 밤에 금강에 채선 띄웠네 | 夜向錦江泛彩舟 |
| 이름난 기생들 열 줄로 말 타고 나오니 | 名妓十隊騎馬出 |
| 붉은 단장과 멋진 복장이 맑은 강에 비치네 | 紅粧袨服照淸流 |
| 천 섬의 맛난 술을 뒤쪽 선창에 싣고 | 千斛美酒載後艙 |
| 갖가지 악기를 뱃머리에 두었네 | 數部鼓吹置船頭 |
| ……중략…… | |
| 공북루 앞에서 배 출발하여 | 拱北樓前初擊汰 |
| 영은사 아래까지 물 흐름에 맡겨두네 | 靈隱寺下任去留 |
| ……중략…… | |

13) 위와 같은 책, 「疊前韵」, "哀絲豪竹絕堪憐, 泝上淸湖月滿船. 不羨渼陂成夜泛, 還疑赤壁挾飛仙. 晶熒霜柿堆金楪, 撥剌江鱗入綺筵. 說與居人須記取, 風流亦足詫它年."

www.kci.go.kr

| | |
|---|---|
| 큰 그물 강에 던지니 고기들 다급히 달아나는데 | 大網截江萬魚急 |
| 붉은 잉어는 스스로 등불 앞으로 다가오네 | 赤鯉自向燈前投 |
| 요리사에게 맡겨 회치게 하니 | 分付饔人斫雪鱠 |
| 연이어 주방에서 맛난 음식 내 오네 | 絡繹中廚薦珍羞 |
| 흥겹게 일어나 성휘와 춤추고 | 狂態起與聖輝舞 |
| 두보의 시로 월희의 노래에 화답하네 | 杜詩却和月姬謳 |
| 성휘의 호탕한 흥취 늙어서도 그대로라 | 聖輝豪興老不低 |
| 때때로 멋진 시 지으니 조유 못지않네 | 時出佳句逼曹劉 |
| 우리는 속인들의 행태 보이지 않나니 | 吾輩不作俗子態 |
| 인간세상의 자잘한 걱정은 싹 털어버렸네 | 掃除人間齷齪愁 |
| 예부터 소선의 멋진 유람 말하는데 | 自古奇遊說蘇仙 |
| 모르겠다 이 유람과 비교해 어떠한가 | 未知與此何如不 |
| 부귀와 영화는 무슨 물건인가 | 富貴榮華亦何物 |
| 세상만사 자유가 제일이지 | 萬事莫如得自由 |
| ……중략…… | |
| 배 돌려 다시 절 누각 앞에 정박하고 | 回纜更泊寺樓前 |
| 깊은 술잔과 크게 저민 고기를 서로 권하네 | 深杯大臠相勸酬 |
| 깊은 즐거움에 센 귀밑머리 모두 잊고 | 樂深渾忘雙鬢白 |
| 흥에 겨워 긴긴 밤 다하는 줄도 모르네 | 興極不覺長夜遒 |
| 취해서 말 타고 노래하며 돌아오는데 | 醉後上馬蹋歌歸 |
| 성 위에 해 나오고 까마귀 울어대네 | 城頭日出鴉啾啾 |

李夏坤,『頭陀草』 책11,「錦江行」

초저녁에 시작하여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뱃놀이가 이어졌고, 곱게 단장한 기녀들과 악기가 준비되었으며, 맛난 술과 강에서 직접 잡은 잉어를 회쳐서 안주로 삼는 모습, 시를 읊조리고 기녀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이 하나하나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 여러 문인들이 함께하는 뱃놀이인 만큼 시의 酬唱도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들의 시가 후한의 曹劉 즉 曹植과 劉楨에 못지않다고 자부하였다. 뱃놀이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사의 시름은 모두 잊었고 부귀도 영화도 관심 밖이다. 蘇仙은 宋나라 蘇軾을 가리킨다. 소식이 1082년 7월과 10월에 赤壁 아래 강에서 배를 타고 풍류를

www.kci.go.kr

즐긴 다음 〈赤壁賦〉 두 편을 지었는데, 이하곤은 자신들의 뱃놀이를 소식의 뱃놀이에 견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곤의 시는 금강 뱃놀이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뱃놀이의 규모이다. 기녀와 술은 물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과 음식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께 하였다. 숫자나 규모면에서 시적 과장이 존재하고, 모든 유람이 이 정도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겠지만 지방관이 준비한 뱃놀이가 어느 정도 성대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뱃놀이의 지점이다. 공북루에서 배를 출발하여 영은사 앞까지의 경로가 뱃놀이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모든 사람이 이용한 경로는 아니겠지만 지방관이 함께한 뱃놀이였던 만큼 가장 빈번하게 애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하곤의 작품에는 遊興의 흥겨움만 느껴진다. 아름다운 장소, 마음 맞는 지인들, 맛난 음식, 술과 노래 등 지금 생각해도 부러울 것 없는 여건을 갖추었다. 속세의 부귀영화를 잊고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늙음조차 망각하였다. 그러므로 뱃놀이를 즐기는 동안만큼은 脫俗을 넘어 仙境에 들어간 듯한 감성이 느껴진다.

近遊의 경우 이하곤의 경우와 달리 送別宴을 겸하기도 하였는데, 그 배경이 달랐던 만큼 시에서 느껴지는 감성도 다르다.

| | |
|---|---|
| 다시 탁금강에 배 띄웠더니 | 又泛樓舡濯錦江 |
| 흰 꽃과 누런 잎이 차가운 창에 비치네 | 白花黃葉映寒窓 |
| 멋진 풍광에 흥겨운 마음 가눌 길 없고 | 雲煙入興難收拾 |
| 시와 술 경쟁하듯 주고받네 | 詩酒交鋒任擊撞 |
| 나그네는 서둘러 역마 타고 갈 생각인데 | 遊子每懷催馹騎 |
| 주인은 곧장 돛대를 세우려 하는구나 | 主人直欲擧帆杠 |
| 이별의 아쉬움 달랠 수 있다면 | 若把離愁都瀉盡 |
| 여기서 일천 동이 술인들 마다할까 | 坐中何啻倒千缸 |

金安國, 『慕齋集』 권1, 「重次錦江舡上韻」

www.kci.go.kr

金安國(1478-1543)은 1513년 경 申用漑(1463-1519)와 함께 공주를 방문하였는데, 위의 작품은 내용으로 볼 때 공주를 떠나기에 앞서 송별연 자리에서 지은 듯하다. 뱃놀이를 나온 만큼 멋진 풍광 속에 술을 즐기는 모습은 이하곤의 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본인은 정해진 일정이 있어 서둘러 떠나야 하는 입장이고, 주인은 그의 발길을 만류하여 금강에서 송별연을 겸한 뱃놀이를 준비하였다. 뱃놀이를 나왔지만 촉박한 일정에 얽매인 모습은 자유를 만끽했던 이하곤의 모습과 다르다. 일천 동이의 술도 마시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지 유람의 흥취를 돋우기 위함은 아니었다. 김안국은 이보다 앞서 한 차례 더 뱃놀이를 즐겼고, 위와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그 시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천의 풍광 흥겹기만 하니, 유람하는 나그네 일천 동이 술도 마시겠네.[袞袞山川來入興, 客遊能費幾千缸.]"[14]라고 하였다. 일천 동이의 술도 마시겠다는 내용은 두 수의 시에 모두 나타나지만 유람의 흥취를 만끽하려는 앞의 시에서 느껴지는 호방함이 뒤의 시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서거정의 다음 시도 이별을 앞둔 시인의 시름이 진하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 | |
|---|---|
| 원님의 높은 누대 잔치 끝나기도 전에 | 使君未罷高樓宴 |
| 학사는 멋진 배로 뱃놀이 나왔네 | 學士還成畫舫遊 |
| 푸른 소매와 붉은 단장이 물에 비치고 | 翠袖紅粧明水底 |
| 검은 마름 흰 연밥이 뱃머리에 반드럽다 | 烏菱白芡滑船頭 |
| 생가는 고금의 한을 아랑곳 않지만 | 笙歌不管古今恨 |
| 경치는 다시 이별의 시름을 더하는구나 | 雲物新添離別愁 |
| 술 깨고 훗날 생각나겠지 | 酒醒他時應記取 |
| 금강과 계룡산의 유유한 이 모습 | 熊江鷄岳兩悠悠 |

徐居正, 『四佳集』 권4, 「與淸甫登錦江樓小頃泛舟中流乘興有作」

14) 金安國, 『慕齋集』 권1, 「次錦江舡上板韻」.

www.kci.go.kr

고을 수령은 서거정을 위해 누대에서 송별연 자리를 마련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서거정은 그 자리가 파하기도 전에 배를 타고 금강에 나왔다. 푸른 소매는 선비를, 붉은 단장은 기녀를 의미할 것이니 혼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님에 분명하다. 게다가 笙歌까지 연주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뱃놀이였으리라. 고금의 한이란 공주의 역사적 경험, 즉 백제의 멸망을 염두에 둔 표현이 분명하다. 망국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유흥을 즐기는데,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도 이별을 앞둔 서거정은 시름겨워한다. 그러면서도 금강과 계룡산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읊었다. 그만큼 서거정의 마음에 금강과 계룡산은 강한 인상을 남겼던 듯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 유역에서 행해진 近遊는 단순한 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별연으로 준비된 경우도 있었다. 근유의 경로는 이하곤의 작품에서 공북루로부터 영은사까지였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뱃놀이가 동일한 경로를 이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지방관이 준비한 뱃놀이에서 이용될 만큼 이 경로는 애용되었던 듯하다. 근유의 한시에 담긴 내용은 공주가 겪은 역사적 경험, 예를 들면 백제의 멸망이나 인조의 주필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지리적으로 아름다운 승경에 치중된 느낌이다. 또한 유람의 목적이 순수한 유람이었느냐 송별연을 위한 것이었느냐에 따라 시인의 감성도 달랐다. 유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람의 흥취에 고조된 감성이 짙게 나타나지만 송별연을 겸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별의 시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遠遊의 과정에서 창작된 한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 Ⅳ. 백마강까지 이어진 遠遊의 한시

공주 금강의 뱃놀이는 공산성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부여 白馬江까지 유람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두 지역은 백제의 고도였으

www.kci.go.kr

며 승경으로 유명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금강에서 백마강까지는 배를 타고 가기에 적당한 거리였으므로 유람의 발길이 이어진 듯하다.

해당 지역의 유람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申混(1624-1656)이다.[15] 1648년 봄, 신혼은 형님 申濡(1610-1665)의 任地인 공주에 갔다가 李子西의 건의에 따라 백마강 유람에 나섰다. 또 그해 가을에는 신유의 요청에 의해 거듭 백마강을 유람하였다. 『初菴集』 권10의 「自錦江舟至白馬江記」와 「後游白馬江記」는 당시의 기록이다. 신혼이 공주에서 지은 시들을 모아 엮은 「錦水紀興」[16]도 공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權文海(1534-1591)는 1581년 공주를 출발하여 백마강을 경유, 임천으로 洪迪(1549-1591)을 방문하고 유람의 기록을 남겼다.[17] 「錦江詩卷跋」[18]을 쓴 朴準源(1739-1807) 역시 공주에서 백마강까지 유람하였다. 1771년 4월, 박준원은 아버지 공주판관 朴師錫(1713-1774)의 任地인 공주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金在淳이 동행하였다. 두 사람은 공주 관아에 도착하여 닷새를 머문 뒤에 배를 타고 백마강에 가서 고란사와 백제의 遺墟를 두루 돌아보고, 계룡산, 마곡사, 錦壁亭 등 일대의 명승을 탐방하였다. 당시 지은 시들은 『금석집』 권2에 수록되었다.

宋秉璿(1836-1905)의 「遊黃山及諸名勝記」는 그가 1866년 燕岐에서 출발하여 黃山[현재의 충남 강경읍 황산리]까지 배로 유람한 사실을 보여준다. 先祖 宋時烈이 俞棨 등과 유람했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간 유람이었다.[19]

이처럼 금강 또는 그 상류에서 시작하여 백마강 또는 그 하류까지 유람한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백마강까지 유람을 나선 데는 나름의 동

15) 신혼의 유람 기록에 대해서는 이종묵의 「백마강의 역사 기행」(『문헌과 해석』 62, 문헌과 해석사, 201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6) 申混, 『初菴集』 卷2.
17) 權文海, 『草澗集』 卷4, 「雜記」, "辛巳年間, 余在公山, 訪洪太古于林川, 自錦江乘小舸, 泛白馬江."
18) 朴準源, 『錦石集』 卷8.
19) 宋秉璿, 『淵齋集』 卷19, 「遊黃山及諸名勝記」, "昔文正先祖, 與市南諸公, 自燕江, 舟下黃山, 有記遊帖. 余每欲依此遊遊而不可得."

www.kci.go.kr

기가 있었을 것인데, 유람의 특성상 백마강의 승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신혼은 “금강이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90리 정도 남겨둔 부여에 이르면 백마강이다. 이곳은 백제의 고도로서 호서 제일의 승경을 자랑한다.”[20]라고 하여 부여가 백제의 고도이며 호서 제일의 승경지라고 말하였다. 특히 박태보는 사람들이 백마강을 찾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아아, 의자왕이 사직을 돌아보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은 채 유흥과 주색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그 일이 대단히 어리석었으니 우습구나. 그러나 후대에 이곳을 유람하는 사람과 지나는 길손들이 찾아가 구경한 곳도 대부분 의자왕의 자취가 남은 곳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강산과 풍경이 이처럼 아름답지 않다면 한 나라의 임금으로 하여금 나라를 잃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천지의 조화로 精氣가 모이고 秀氣가 쌓인 곳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내가 또 어찌 거닐면서 영탄하지 않겠는가.[21]

부여는 120년 동안 백제의 도읍이었고, 의자왕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박태보는 유흥과 주색에 빠진 채 사직과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의자왕을 어리석다고 폄하하였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백마강을 찾아 구경한 곳도 대부분 의자왕의 자취가 남은 곳이라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것은 임금이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황음을 즐길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백마강이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자왕의 유흥과 주색이 전적으로 백마강의 승경에서 기인하지는 않았겠지만 박태보가 이런 논리를 펼 만큼 백마강의 풍광은 빼어났던 것이다.

---

20) 申混,『初菴集』卷10,「自錦江舟至白馬江記」, “錦江西流, 將入于海, 至扶餘餘九十里, 爲白馬江. 是百濟故都, 形勝甲湖西.』

21) 朴泰輔,『定齋集』卷4,「濟都遊覽詩序」, “嗟乎. 義慈王不顧社稷, 不恤政事, 流連荒亡, 以墜其國, 其事至愚, 可笑. 然後之遊人過客所登臨而探賞者, 大抵皆義慈之遺跡, 何哉. 蓋江山之麗風景之美不如此, 則亦不足以使人君至於失國而不悟. 又其天地造化所儲精而蓄秀者, 有不可以一人之累而遽廢之也. 吾又安得不徘徊詠歎也哉.”

www.kci.go.kr

금강에서 백마강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으므로 船遊를 위해서는 만반의 채비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신혼이다.

> 배 가운데에 작은 정자를 만들었는데 매우 견고하고 치밀할 뿐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정자 위에는 장막을 쳐서 그 안에 여자 악공들을 태웠으니 노래하는 이가 둘, 거문고 연주하는 이가 하나, 북과 腰鼓를 치는 이가 각각 하나였으며, 두 아이로 하여금 마주보고 춤을 추게 하였다. 피리를 부는 이는 관노로 이름이 小男이었다. 앞의 배에는 악기를 싣고 뒤의 배에는 술과 안주를 실었다.[22]

내용으로 볼 때 신혼은 두 척의 배를 준비하였다. 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한 정자가 세워져 있고, 드리워진 장막 안에 여자 악공들을 태웠다. 노래하는 이, 거문고 연주자, 북과 요고 연주자, 춤을 추는 사람, 그리고 피리를 부는 사람까지 악공만도 8명이나 된다. 뒤따르는 배에는 술과 안주를 실었다고 했으니 그 규모의 성대함을 짐작할 만하다. 신혼의 형 신유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의 유람이었으니, 이런 채비는 신유의 도움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앞서 이하곤의 경우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기녀들이 함께 한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도 지방관으로 있던 이형곤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혼의 경우와 유사하다.

신혼의 기록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배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船中構小亭]"라는 내용이다. 신혼은 두 번째 유람의 기록에서 "배는 곧 예전에 기록했던 작은 정자가 세워진 배이다."[23]라고 하여 첫 번째 유람 때와 같은 배를 이용했음을 밝혔다. 한편 蔡彭胤(1669-1731)의 시에 "화려한 고란각은 봄눈 속에서 선명하고 떠있는 탁금정은 저녁 강물을 희롱하네.[高蘭彩閣明春雪, 濯錦浮亭弄晩湖.]"[24]라고 하였는데, 시의 自註에 "탁

22) 申混, 『初菴集』 卷10, 「自錦江舟至白馬江記」. "船中構小亭, 制作殊堅緻而無圖彩. 亭上設屛帳, 內有女樂, 謳者二琴一鼓一腰鼓一, 令兩兒對舞, 吹笛者官奴名小男. 前船載簫角, 後船載酒肴."

23) 위와 같은 책, 「後游白馬江記」, "舟卽前記構小亭者."

24) 蔡彭胤, 『希菴集』 권4, 「贈別忠淸都事金天與」.

www.kci.go.kr

금정은 금강의 선각이다.[濯錦亭, 錦江船閣.]"라고 하였다. 甲戌年(1694)에 지은 작품이라 했으니 당시 금강에는 탁금정이라는 정자가 설치된 樓船이 있었던 듯하다. 신혼이 유람했던 때와는 반백년 가까운 시간의 간극이 있으므로 신혼이 말했던 小亭이 탁금정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정자가 있는 樓船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백마강을 방문한 이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 박태보는 의자왕의 자취가 남은 곳이라 했는데, 백마강에서 지어진 작품들을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 먼저 李穀은 낙화암 · 조룡대 · 호암 · 천정대에 대해 소개하고 "이곳은 이른바 부여의 사영인데, 이 고장의 아름다운 곳으로 호사자들이 불원천리하며 찾아온다."[25]라고 하였다. 이곡의 「舟行記」는 백마강 유람 기록 가운데 초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네 곳은 '사영'이라 불릴 만큼 명성이 있었던 듯하다. 신혼의 경우 皐蘭寺, 扶蘇山, 落花巖, 自溫臺, 釣龍臺, 天政臺 등을 유람하고 각 지점에 얽힌 전설들을 소개하였다. 백마강에서 선유를 즐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여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체로 앞에 나열한 장소를 찾아 시로 읊었다.

금강에서 백마강까지 원유에 나섰던 이들의 기록을 보면 酒興도 등장하지만, "백씨께서 그의 부채에 절구 한 수를 쓰시고 나에게 화운하게 하셨다.[伯氏題一絕於其扇, 屬余和之.]", "당시 지은 시는 내가 몇 편이었고 중관이 몇 편이었다.[其所爲詩, 余幾篇仲寬幾篇.]", "내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천 리 금강 물결 바다어귀로 통하는데 석양에 긴 피리 소리가 중류를 내려가네.'라고 하였다.[余有詩云, 千里錦波通海口, 夕陽長笛下中流.]"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이러한 내용은 유람 과정에서 한시 창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지은 한시들이 산문에 함께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물의 문집을 검토하면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유의 경우 금강은 유람의 출발지일

25) 李穀, 『稼亭集』 卷5, 「舟行記」. "此所謂扶餘之四詠, 一方之勝境, 而好事之人, 不遠千里而至者也."

www.kci.go.kr

뿐이기 때문에 근유 제영시에 비해 공주와 관련된 정보는 미약하다. 그들이 백마강까지 유람을 나선 목적은 그곳의 풍광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술과 음악을 준비하고, 높은 흥취를 노래하기도 하였다.[26] 그러나 백마강을 방문한 이들이 찾아간 곳은 백제의 유적이나 의자왕이 荒淫을 즐기던 곳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백제의 멸망에 상심하는 내용의 시가 주류를 이룬다. 한 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산유화가를 사람들 슬퍼하는데 | 山有花歌世所悲 |
| 부소의 남긴 곡조임을 누가 아는가 | 扶蘇遺曲問誰知 |
| 화려했던 작은 나라 부질없는 꿈같고 | 繁華小國空如夢 |
| 긴 강에서의 싸움 아직도 믿기지 않네 | 戰伐長江尙有疑 |
| 높은 성첩 다 무너져 푸른 풀 자라고 | 高堞盡頹生碧草 |
| 황량한 산만 남아 노란 꾀꼬리 맴도네 | 殘山獨在遶黃鸝 |
| 여기 오니 절로 가슴 아픈 곳이라 | 到來自是傷心處 |
| 돌아가는 이에게 피리 불지 못하게 하네 | 莫遣歸人復笛吹 |

朴準源, 『錦石集』 권2, 「皐蘭寺」

「산유화가」는 곡조 이름인데, 林泳은 시 가운데 "산유화는 백제의 옛 곡조인데 소리만 있고 가사가 없다.[山有花百濟舊曲也, 有音而無詞]"[27]라는 제목이 있다. 李裕元도 "산유화가 1편은 백제의 노래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나 지은 사람은 미상이다."[28]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首聯은 백제 때 지어진 「산유화가」를 인용하여 슬픈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함련은 화려했던 백제의 멸망, 그리고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는 전설에 대한 의구심을 읊었다. 경련은 도읍지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황폐한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미련은 백제 폐망의 역사에 상심한 시인

26) 朴準源, 『錦石集』 권2, 「翌朝復泛馬江有投網捉魚之興」, "借網扶餘縣, 觀漁白馬江. 村炊倚沙岸, 官酒置篷牕. 近舶風翻櫂, 遙汀日上幢. 興高入蘭寺, 船尾繫魚雙."
27) 林泳, 『滄溪集』 권1.
28) 李裕元, 『林下筆記』 권18, 「群書撰人」, "山有花歌一篇, 百濟曲, 男女相悅之詞, 撰人未詳."

www.kci.go.kr

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신혼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扶餘懷古」에서 의자왕이 유흥만 즐기다가 위기에 닥쳐서는 成忠의 忠諫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이라 하였다. 결국 당나라 군사에 의해 나라는 망했고, 궁녀들이 자결한 낙화암과 황폐한 반월성만 남았으며, 뛰어나지도 않았던 소정방의 큰 공로만 蘇定方碑에 새겨졌다고 안타까워하였다.[29] 그가 공북루에서 "흥망의 자취 남은 유서 깊은 곳에서 부질없이 시름겨운 사람이네.[廢興千古地, 身世謾多愁.]"라고 하고, 고란사에서 "흥망의 역사 옛 일이 되었는데, 늙은 승려는 아직도 지난 왕조의 일을 말하네.[興廢已成千古事, 老僧猶自說前朝.]"라고 하여 백제의 멸망, 흥망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 애석해하는 점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성대한 채비를 갖추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며 실컷 취해서 기녀들의 연주가 시들해지자 매질까지 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荒淫無度한 것이 의자왕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농을 나누는 장면에서는[30] 상심보다는 유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 유흥에 고조된 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금강과 백마강에서 지어진 작품을 두루 비교하면 상심의 농도는 금강에서 지어진 작품보다 백마강에서 지어진 작품이 짙으며, 백제 및 의자왕에 대한 회상 내용도 백마강에서 지어진 작품이 더 구체적이다. 부여에는 낙화암·조룡대·호암·천정대·대왕포·평제탑 등 의자왕의 荒淫과 백제의 자취를 간직한 곳들이 많고, 그에 얽힌 전설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공주는 의자왕이 최후에 항복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요소가 부족하다. 또 인조의 駐蹕이 큰 의미로 작용하고, 인조가 머물렀다는 쌍수정,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충성심 발로의 장소였던 拱北樓의 비중이 커서 부여에 비해 백제에 대한 상심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듯하다. 근

29) 申混, 『初菴集』 卷2, 「扶餘懷古」, "望海高樓樂未終, 臨危方悔棄成忠. 兵來泗沘潮聲壯, 運去扶蘇王氣空. 寒雨幾經花落後, 古城猶在月明中. 可憐唐將無奇策, 還勒東征第一功."

30) 申混, 『初菴集』 卷10, 「自錦江舟至白馬江記」, "都事已醉, 怒妓怠樂, 將欲笞.……余戲謂荒淫無度, 必爲義慈所笑."

www.kci.go.kr

유의 경우 송별연을 겸하기도 했지만 원유의 경우 순수한 유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하겠다.

## Ⅴ. 맺는 말

전통시대 공주는 백제의 도읍이었고 인조의 駐蹕地였으며, 군사·교통·행정의 측면에서 중시된 지역이다. 공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기억해 냈고, 한시 창작에 활용하였다. 허적은 "금강은 자고로 가슴 아픈 곳, 하물며 가을날 낙엽 지는 때임에랴. 객지에서 그대 보내려니, 한 곡조 슬픈 노래에 눈물만 줄줄 흐르오."[31]라고 읊어서 이별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별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장소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고, 시절은 낙엽 지는 가을이었다. 두 요소가 이별의 슬픔을 가중시킨다. 이경석은 "탁금강 가에 단풍 곱게 물든 가을, 흰 구름 그대로이고 강물은 아득히 흘러가네. 한 없이 가슴 아픈 일 있나니, 선왕 모시고 이 누대에 올랐었지."[32]라고 하며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단풍 고운 가을 강가에서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할 만한데 이괄의 난 때 인조를 공주까지 호종했던 일을 회상하며 상심에 젖었다. 공주라는 장소가 겪은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주는 두 역사적 사실 이외에 승경을 갖춘 선유지인 금강으로도 유명하였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금강의 선유는 백제의 도읍, 인조의 주필지, 충청감영 소재지로서의 공주와 함께 공주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는 승경을 갖춘 선유지로도 유명했던 금강을 선유하며 지은 한시 작품 분석을 통해 금강의 뱃놀이 모습을 검토하였

31) 許積, 『水色集』 권2, 「送人」, "錦江自古傷心地, 況復秋天搖落時. 却向客中還送客, 悲歌一曲淚如絲."

32) 李景奭, 『白軒集』 권11, 「拱北樓」, "濯錦江邊紅樹秋, 白雲依舊水悠悠. 孤臣無限傷心事, 曾扈先王上此樓."

www.kci.go.kr

다. 금강에서의 선유는 공산성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近遊와 하류 지역인 백마강까지 이어지는 遠遊의 형태로 행해졌다.

근유는 다시 순수 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송별연을 겸한 경우가 있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진 선유였지만 전자는 고조된 흥취가, 후자는 이별의 아쉬움이 진하게 나타난다. 장소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근유의 경로는 이하곤의 작품을 통해 공산성의 공북루에서 영은사 앞까지가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선유의 채비는 술과 안주는 물론 기녀와 악공까지 동반하기도 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서도 이런 채비가 확인되었다. 선유 경로와 채비는 사람마다 달랐을 것이다. 이하곤과 신혼은 지방관의 도움으로 선유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채비의 성대함도 유사한 면이 있어서 당시 지방관의 영향력, 그리고 근유에 이용된 경로가 가장 애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유의 경우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지만 공주와 함께 백제의 도읍이었던 부여의 백마강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마강은 금강 못지않게 승경으로 유명했고, 금강에서 배로 이동하기에 적절한 거리였으므로 발길이 이어졌던 듯하다. 근유의 경우는 송별연을 겸한 선유도 있었지만 원유는 순수 유람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주와 부여는 모두 백제의 도읍이었지만 백마강에서 창작된 한시는 백제 멸망에 대한 상심의 농도가 금강 선유에서 지어진 한시보다 짙게 나타났다. 백마강에는 백제의 역사, 의자왕의 황음과 관련된 장소가 많고 관련된 이야기 요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荒淫無度를 의자왕이 비웃을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유흥을 즐기는 모습도 발견되는 만큼 백마강 선유에 나선 사람들이 모두 상심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33]

33) 구본현은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이 겪는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가 창작 공간에 따라 주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船上 창작 漢詩의 특징과 의미」, 『漢文古典硏究』 3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p.25 참조).

www.kci.go.kr

문학은 음악, 미술, 공연 등과 함께 예술문화자원으로 분류된다.[34] 문학이 인류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전승된 문화자원이라면 한시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관광문화자원으로 분류되는 유물과 유적은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전통시대의 문학은 소수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공주의 역사와 장소의 경험을 간직한 유형의 문화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존할 수 없고 기억될 수 없는 장소의 특징을 문학 작품은 간직하고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해 없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고의 논의는 금강의 船遊 모습을 개괄하는 데 그쳤지만, 더 많은 자료 발굴과 연구를 통해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4) 정경일 · 류철호,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글누림, 2017, p.29.

www.kci.go.kr

## 〈參考 文獻〉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各司謄錄』; 『大東地志』;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韓國文集叢刊』: 具鳳齡, 『栢潭集』; 權文海, 『草澗集』; 金安國, 『慕齋集』; 柳成龍, 『西厓集』; 李景奭, 『白軒集』; 李裕元, 『林下筆記』; 李夏坤, 『頭陀草』; 林泳, 『滄溪集』; 朴準源, 『錦石集』; 朴泰輔, 『定齋集』; 宋秉璿, 『淵齋集』; 申翊聖, 『樂全堂集』; 申混, 『初菴集』; 李穀, 『稼亭集』; 蔡彭胤, 『希菴集』; 許積, 『水色集』

구본현, 「船上 창작 漢詩의 특징과 의미」, 『漢文古典硏究』 3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김동현, 이원호, 「조선시대 명승유람 행태의 특성 - 遊山과 船遊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80권, 한국관광학회, 2016.

이종묵, 「백마강의 역사 기행」, 『문헌과 해석』 62집, 문헌과 해석사, 2013.

임선빈, 「錦江의 지명 변천과 國家祭儀」, 『역사와 경계』 7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9.

정경일, 류철호,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글누림, 2017.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Geumgang Boating Chinese Poem*

Jung Man-ho*

Gongju in Chungcheongnam-do is now a small town with a population of about 100,000. However, it was renowned for its ancient, military, and transportation points during the Baekje era.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military/administrative as the site of the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The Geumgang River in Gongju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mountains and streams of Gongju along with Mt. Gyeryongsan. It was not only an important waterway for the transport of goods from the Yellow Sea to the upstream of the river, but also a place where they frequently traveled to and from Gyeonggi and Jeolla provinces. It was also famous for its historical site, as it combined with Gongsansong Fortress to form a magnificent view. Not many people remember the sight of boating on the Geumgang River as bridges were built and land transportation developed. Rather, it raises doubts that boating may have been possible based on the current appearance of the Geumgang River. However, many poem created on the Geumgang River are admired for the outstanding scenery around it and vividly depict even the spectacular boating scene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mention the experience of Gongju in the traditional era, the ancient city of Baekje, the stopover of King Injo, is a very meaningful experience. This became a medium for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and other relics, as well as the Ssangsujeong and the Ssangsujeong Memorial Stone of Gongsansong Fortress, to convey to people the meaningful experience of Gongju for a long time continuously and repeatedly. Mt. Gyeryongsan is also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so visitors to the temple, including Gapsa and Donghaksa, visit the temple for hiking purposes. Despite the fact that Geumgang was the scenery representing the traditional Gongju, however,

* Associate Professor of Chungnam Nat'l Univ. / 330201@hanmai.net

www.kci.go.kr

it lacks the medium to deliver its fame and its ancient form today.

The study sought to find the boating in the Geumgang River in the poem, which is disappearing from the memory of the people, and examine the image of the Geumgang River, which was an important place in Gongju. Boating in the Geumgang River was sometimes carried out around Gongsansong Fortress and even to Baekmagang River in Buyeo. The sensibility of the places, sizes and poets where boating occurred was reviewed by separating the former as Geunyoo and the latter as Wonyoo.

Boating often contains entertainment rather tha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compared to the poem written at the same place because it has cruising purposes. Gongju and Buyeo are Baekje's ancient cities and have a great view in common, however, the degree of mourning for the fall of Baekje is more apparent in the Chinese poem written during the cruising of Baekmagang River.

【Key words】 Geumgang, Baekmagang, Boating, Chinese poem, Baekje ancient city, magnificent view, placeness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www.kci.go.kr

www.kci.go.kr